1974년, 한 행동대원의 고백

박 용 훈

*박용훈님은 민청학련사건 당시 서울대 동양사학과 2학년생이었으며, 석방후 노동현장에서 용접 일을 하다가 1980년 소위 '무림' 사건으로 구속되어 1년 6개월을 보역했다.

글을 쓰기로 약속한 후, 글의 방향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해 보았다.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처음부터 구체적인 사건 중심의 글들을 모아 민청학련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백서를 제작한다는 취지는 진작 알고 있었으나, 막상 내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자 하니 이런 저런 망설임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 일생의 원점이라고도 할 사건에 대해 당당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지난 30년 간 긍지의 원천이었던 일을, 현재의 원망으로 도배질할 수도 없고!

현재의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지난날 민청의 주역 몇몇이 청와대의 주요 보직에 들어선 후 언론에 민청세대가 주류니 386세대가 주류니 하는 글들이 많이 나온 후에는 더 더욱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민청세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이르다는 생각이고, 심지어는 민청세대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나, 이제 약속한 마감시간이 다가오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털어내고, 처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단순한 사실 중심의 글만이라도 남기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인천에서 제물포 고등학교를 모범생으로 보냈던 나에게 원래 유신이나 박정희 독재는 무관한 것이었다. 오히려 대학 입학 전까지 나는 박정희를 약간은 존경하는 쪽이었고, 다만 유신이 선포된 72년 10월, 당시 고교 2학년이었던 나는, 이제 겨우 마스터한 사회과목을 새로 생긴 헌법 공부 때문에 다시 해야 할 것 같다는 정도만이 유일한 불만이었다.

무난히 서울 문리대 동양사학과에 들어간 처음 몇 달간은, 선배들

이 강권해서 배운 술 마시기와 종종 있는 여대생들과의 미팅으로 이제 막 성인이 된 흐뭇함을 느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매우 만족스런 기간이었다.

이처럼 아무런 사회 비판의식이 없이 대학에 들어간 나에게 당시의 시대 상황을 둘러보게 만들었던 것은 당시 서울 문리대생 일반에게 퍼져 있던 유신체제에 대한 지식인 특유의 비판의식과, 무엇보다도 대학 1학년 때 고교 및 같은 동양사학과 1년 선배인 백영서 형의 권유로 가입한 한국사회연구회(한사) 선배들의 영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서클은 원래 서울상대생만이 회원이었으나 내가 가입하기 3년 전부터 모든 서울대생을 회원으로 받아들여 문리대와 법대생, 그리고 약간 명의 사대생들이 참여하고 주도 세력은 상대생인 그런 사회과학 연구 모임이었다.

이 모임의 멤버로서 민청사건에 연루되어 끝까지 함께 실형선고를 받았던 사람은 내 입학 당시 상대 3학년으로서 한사 회장이었던 김병곤 형(71학번), 74년 사건 당시 문리대 3학년이었던 사회학과 이종구형, 나와 같은 과 3학년인 백영서형(모두 72학번), 그리고 당시 겨우 2학년에 막 올라갔던 나(73학번) 등 4명이었고, 75년 2월 풀려난 후 보니 대다수는 당시 긴급조치 조항에 있는, 자수하면 무죄방면한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자수한 후 계속 학교에 남았다가 후일 긴급조치 9호 시절 새로운 학생시위의 선봉이 되거나 혹은 주위의 강권으로 군대로 간 사람도 많았다.

이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당시 자수했을 때의 참담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 나를 민청사건에 구체적으로 참여시킨 71학번 박종현 선배도 그 때 자수한 후 아직까지 우리들 후배에 대한 마음의 빚을 느끼고 있는 선배의 한 사람이다.

방송에서는 송창식의 〈고래사냥〉마저도 퇴폐적이라고 금지된 채,

"좋아졌네, 좋아졌어!"라는 새마을 노래 등만이 나오고, 신문에서는 연일 남침 위기를 맞았다며 유신체제의 불가피성만을 홍보하던 그 때, 한사 모임에서 읽은 E.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는 나에게 당시의 언론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나름대로는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읽은 박현채 선생의 『민족경제론』, 동학농민전쟁 등을 다룬 책이나,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 등에서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였다.

얼마 전 『전태일평전』을 읽으면서 당시에는 이런 글들도 없었지 하는 감회도 들고, 또한 최근 누군가가 박현채 선생이 당시 항상 중정의 감시를 의식하여 의도적으로 글을 난해하게 썼다는 이야기를 하여서 파안대소한 일이 있는데, 당시 대학생들의 의식화 정도란 것이 겨우 이런 수준이었음을, 요즘에 김학민 선배와의 술자리 대담을 통하여 확인하며 격세지감을 느끼곤 한다.

이렇게 반은 미래에 대한 장밋빛 환상으로, 반은 점차 사회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워나가고 있던 나에게 한사 선배인 김병곤형이 73년 10월 최초의 반 유신데모로 구속된 일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당시 나는 겨우 1학년 말을 보내고 있었다.

이후 12월 초 그들이 석방되기까지의 2달여,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진 겨울방학도 없이 매주 진행된 한사 모임에서는 아직 새내기들인 우리 동기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긴장의 세월이었다. 새학기 들면 무언가 터질 거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고, 그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지 제법 진지하게 고민하던 시기였다.

이 때문에 당시 사귀던 여학생과도 헤어지며 나름대로는 마음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었으나, 막상 개학이 되고 1달 여가 지나도록 학교 안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고, 이제 막 2학년이 된 나는 아무런 정

보도, 연락도 없이 4월을 맞고 있었다.

4 · 3 디데이 하루 전인 4월 2일 10시 경, 때마침 결강이 된 기회를 맞아 봄날의 식곤증도 달랠 겸 같은 과 동기생들과 함께 학교 주변의 당구장으로 찾아가 막 큐대를 찾고 있는데, 위에서 말한 박종현 선배가 당구장으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분위기로 보아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한 나는 동기들에게 일이 있다고 한 후 바로 택시를 타고 이춘길, 이세영 등 다른 한사 동기들이 모여서 내일의 유인물을 인쇄하게 되는 어느 선배의 자취방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게 이제는 대부분 대학교수가 된 입학 동기생들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 첫발이었다. 거기서 이제는 기억도 흐릿한 민청학련 명의의 「민주 · 민족 · 민중선언」과 또다른 이름의 유인물 약 500매의 등사를 위한 필경작업을 한 후, 저녁 늦게 박종현 선배의 안내로 다른 여관으로 옮겨가 다음날의 거사를 대기하게 되었다.

다음날 2명이 한 조가 되어 내가 맡은 일은 어제 인쇄한 유인물과, 가는 길에 피켓용 각목 20여 개를 사가지고 학교 내로 운반하는 일이었다. 그 다음은 학교 내에서 다른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몇 천원을 얻어 약 1.3미터의 각목 20개와 책가방에 든 유인물을 가지고 학교 후문에 도착한 것은 대략 오전 10시쯤이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아직 형사들이 현행범이 아닌 학생들을 길에서 무조건 불심검문하든지 학교 내로 무단 침입하는 것은 아직 아니었던 모양이다(60년대의 학교는 요즘의 명동성당처럼 거의 치외법권지역이었다고 한다). 후문에는 형사로 보이는 사람 4~5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와 이춘길이 각목과 가방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담장 너머로 던지고 태연히 후문으로 들어가는데도 잡거나 뺏거나 혹은 못 들어가게 막지를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태연히 학교 안으로 들어가 다시 짐을 챙겨든 우리들은 요즘 대학로의 그 유명한 마로니에 나무 밑으로 갖다 놓은 후 그 아래 벤치에 앉아서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 안에는 이미 잠바를 입은 형사들이 백여 명 이상이나 서성거리고 있었으나, 우리의 짐을 전혀 터치하지 않고 단지 쳐다보고만 있었다. 아마도 이것이 그 이후 민주화되기 전에 있었던 마지막 치외법권 시대의 일인 듯 싶다. 이후 긴급조치 9호와 계엄령, 5·6공 시대에는 항상 형사들이 학교 중심지를 점거하고 있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학생들의 소지품을 마구잡이로 뒤지던 시대가 이어졌으니까!

당시 학교에는 형사 백여 명에 학생이래야 겨우 50여 명이 끼여서 서성이고 있었다. 물론 대부분이 데모 주동자들이었으나 겨우 1년밖에 대학을 다니지 않은 나는 그들을 잘 모르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내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누가 보아도 그 날의 데모는 불가능해 보였고, 훗날 알았지만 중요 임무를 맡았던 선배들은 이미 하루 이틀 전에 사전 검거되거나 혹은 이런 낌새를 알고 잠적하여 학교에 나타나고 있지도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약속된 각본에 의한 지시자가 없어서 말단 행동대원들만이 순진하게 현장에 나와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들도 마냥 한가롭게 앉아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언제라도 형사반장 지시 한 마디로 잡혀갈 수 있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초조하게 약 30분 앉아 좌불안석인 중에 별안간 옆에 앉아 있던 인상이 약간 험악해 보이는 선배 한 사람이 학생동원을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전에 정해진 대로 정해일 선배와 함께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마침 내가 그 시간에 들어야 할 강의실이었다. 수강하는 학생들이나 교수 모두 익숙한 얼굴이었으나 그들은 태연히 강의실에 앉아 있고,

나 혼자 초조해 하며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배신감도 들었다. 밖에서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가슴으로 정면의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교수는 이미 눈치를 채고 막무가내로 나가달라고만 하는 것이었다.

겨우 뒤에서 몇 명만이 "나갑시다"하며 뒷문으로 나서고, 나머지는 겁을 집어먹고 고개를 돌리는 중에 교수의 나가달라는 채근만을 들으며 뒤돌아 서서 나가자니 이런 일이 처음인 나로서는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몇 개 교실을 이런 식으로 돌고 나서 교정으로 돌아온 나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교정에 돌아와 분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한 가슴을 정리하며 벤치에 앉아 있는데, 별안간 아까 학생 동원을 지시한 선배(후에 보니 이해찬 선배였다)가 내 가방 속의 유인물을 달라고 하더니 겨우 백 여명이나 모였을까 한 학생들과 거의 동수인 형사들이 섞여 있는 사이에서 막 뿌려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내 눈에 즉각 형사들에게 번쩍 사지가 들려 잡혀가는 모습이 들어왔다. 잠시전 학생동원 시의 흥분이 채 가라앉지 않았던 나는 마침 내 발 밑에 놓여 있던 각목 하나를 잡고서 이해찬 선배를 잡아가는 형사를 향하여 휘둘렀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바로 옆에서 쳐다보고 있던 형사들에 의하여 내 각목이 미처 내리쳐 지기도 전에 나 역시 번쩍 사지가 들려지고 말았다. 이 모든 일이 거의 1분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 와중에도 번쩍 사지를 들려 연행되어 가는 나를 애처러히 바로 옆에서 쳐다보고만 있던 고교 동창들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어른거린다.

즉각 차에 태워져 종로 5가 동대문경찰서로 끌려가 경범 위반자들을 임시 수용하는 곳에 갇힌 나는 그 이후 계속 끌려온 학우 30여명과 함께 그곳에서 10일을 보내게 되었다. 그날 저녁 긴급조치 4호가 발동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잡혀온 학생 중에는 하숙집에서 싸준 도시락 김치국물이 샐까봐 어제 우리가 뿌린 유인물을 용케 주워서 그것으로 김치병을 싸서 학교로 들고 들어오다가 미라보 다리에서 검문에 걸려 끌려 들어온 지방 출신 의대 1학년생도 있었다.

조사를 통해 이런 단순가담자는 10일 후에 풀려나고, 비교적 조직적으로 가담한 우리들은 10일 후에 영장이 떨어져 같은 동대문서 유치장으로 이송되었다. 서울 문리대, 사대, 의대생과 부근의 성대생을 포함하여 처음에는 20여 명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마지막까지 같이 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은 서울대 이해찬, 백영서, 정진태, 이동진, 서종수 선배와 성대 이기승, 김수길 선배, 두 달 여를 더 고생한 후 기소유예로 풀려난 서울의대 임태환, 최석구, 임현술, 김기락 선배, 그리고 그 이후 추가로 잡혀온 정동영 선배와 어느 여학생도 한 명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다수가 한 방(사실은 3개 방을 썼는데, 나중에는 열쇠도 잠그지 않고 서로 이동하도록 해 주었다)에서 오래 있다 보니 유치장 경찰관과도 친해져 저녁이면 노래자랑도 하며 비교적 재미있게 보낸 시절이었다. 물론 이철 선배가 잡힐 때까지 이해찬 선배는 거의 매일 저녁 끌려나가 맞고 들어 와 우리의 현실을 깨우쳐 주고, 우리들은 종범이니 곧 풀려날 거라는 보안과장의 말이 언제 실행될지 기다리는 심적 고통도 있었지만!

이후 60여일 유치장에 있다가 정식 기소가 되어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서 보낸 세월은 이미 모두 아는 일이므로 내가 특별히 기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다만 나와 개인적으로 연관된 일 몇 가지만 차제에 얘기해 두고 싶다.

이번에 이 글을 쓰기 위하여 옛날의 재판 기록을 다시 구해 읽어

보니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앞에서 얘기한대로 나는 긴급조치 위반만을 한 것이 아니고 형사를 구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죄목이 추가되었는데(전치 1주 1명, 2주 1명, 10일의 요양 1명), 이런 이유로 형무소 안에서도 심지어는 선배들까지 "우린 정치범이므로 다 나가도 너는 중간에 나갈 수 없고 끝까지 살아야 한다"는 농담을 줄곧 하여 어린(?) 후배의 가슴을 조이게 하곤 하였는데(김학민 선배는 요즘까지 나를 소개할 때 민청의 막내이고, 또한 형사를 팬 바로 그 친구라고 소개할 정도로 당시는 이것이 재미있었던 모양이다), 이제와 돌아보니 그때 형사들에게 각목을 휘두른 사람은 내가 아니고 바로 김형배 선배라는 것이다.

내 공소장에도 '성명불상'의 학생에게 내가 각목을 나눠주어 그가 무차별 휘두르게 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당시 3학년이자 한사 회원이기도 했던 김형배 선배가 쓴 글 「새벽을 엿본 마로니에 나무」에서, 내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자기가 각목을 휘둘러 형사들을 때린 후 자기는 용케 도망갔다고 적혀 있고, 사석에서 술 한잔 하면서 자랑스럽게 나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다.

민청학련 관련자가 너무 많다 보니 대부분의 2학년생들은 중간에 기소유예로 석방되었으나 나와 정진태, 문국주 3명은 끝까지 남아 실형을 살았다. 문국주는 화염병 제작용 박카스병 50개를 준비하였다는 이유로(요즘 시위와 비교하면 얼마나 낭만적인가! 더더욱 써먹지도 못했으니), 더더욱 우스운 일은, 정진태는 나를 치켜 든 형사를 막는답시고 등 뒤에서 끌어안자, 또 다른 형사가 자기를 잡아채는 중에 그 형사의 손가락이 자기 입안으로 들어오자 무심코 한번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죄로 풀려나지 못했던 것이다.

3명 모두 국가를 폭력으로 전복하려 한 민청학련의 폭력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서 풀려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민청학련의 대의에 대해

요즘 누가 무슨 소리를 한들 상관없지만, 우리들의 폭력성(?)은 요즘에는 불구속거리도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 경우에는 사실관계에서도 억지였던 것이다.

또 하나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내가 안경도 없이 10개월을 보내며 고생한 일이다. 원래 나는 눈이 매우 나빠 안경이 없으면 2미터 앞의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데, 사건 당일 잡혀가면서 안경을 떨어뜨려 수형생활 내내 눈뜬 장님으로 보내야 했다. 그 때 교도소 안에서나 재판정에 갈 때 우리들끼리는 서로 말을 못하게 하니까 멀리서 눈으로 안부를 묻곤 하였는데, 나는 도대체가 보이지를 않으니 인사를 할 수가 없었다. 그 때 혹시나 내가 인사도 안받는다고 무척 건방지다고 생각한 분이 계시면 차제에 오해를 풀어주시기를!

당시 감옥에 득시글하던 빈대, 벼룩을 제대로 피하지 못해 전신에 피부병이 창궐하여 피부병사에까지 갔고, 심지어는 밤마다 전신을 쥐어짜오는 피부병의 고통에 못 이겨 정말로 죽고싶다는 생각을 하며 초가을의 밤하늘을 바라보고 혼자 울어 보았던 74년 9월 초 서울구치소 12동하 10방의 기억을 창피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고백한다

혹시나 이 글을 읽게 될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설명을 좀 붙이자면, 긴급조치 초기인 민청 시절에는 일체의 면회가 출소시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당시 우리들은 그 이후 빈번히 있었던 옥중투쟁도 할 줄 몰랐다. 한방 건너 한명꼴로 우리들을 수감해 두었으므로 만약 법정에서 싸우듯이 처우개선을 위하여 투쟁하였다면 형무소 민주화도 훨씬 앞당겨 졌을 터인데!

10년의 형기를 다행히도 10개월 반만에 마치고 75년 2월 17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나는, 그 후 군입대, 복학, 외국유학, 정상적인 취업 등 모든 것이 금지된 채 3년간 용접공으로 살며 꿈같은 20대를 보내야 했고, 80년 광주사태 뒤에는 무림사건의 배후 주동자로 몰려 또 다시 1

년 반의 수형생활을 해야 했다. 끔찍한 전두환의 계엄 시절이었으나 면회도 되고, 책 반입도 되는 것을 보면서, 긴급조치 9호 시절 우리 후배들의 치열한 옥중투쟁과 민청사건시 우리들의 옥중생활을 비교하며 슬며시 웃었다.